

도시 발전과 초대형 교회건축: 서울을 중심으로*

장 형 철**

- I. 들어가는 말
- II. 성장동맹과 초대형 교회의 등장: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 III. 건조환경의 조성 and 초대형 교회: 1990년대
- IV. 포스트 메트로폴리스 서울과 초대형 교회의 스펙타클: 2000년대
- 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근대의 도시는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며 성장한다. 서울은 1960년대부터 급격한 팽창¹⁾을 하여 현재 인구가 천만 명 이상이며 정치, 경제, 정보 등의 기능을 통합하는 거대한 도시 즉 메트로폴리스(metropolis)로 변화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아 서울은 산업화와 인구집중 등으로 인한 도시화(urbanization) 그리고 강남개발로 대표되는 교외화(suburbanization)을 통해 확장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계속 바뀌고 있다. 1990년대를 전후하여 서울에는 많은 고층건물이 세워졌으며 공원이 조성되었으며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개발이 이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구감소와 아파트 등 부동산 경기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서울의 중심부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즉 저소득층을 밀어내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하여 고급 주거공간과 상업지구가 만들어지면서 도시 중심부가 재생 및 그 기능이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²⁾. 이러한 도시의 변화 과정 속에서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330-2012S1A3A2033608).

** 인덕대, 교목

1) II장의 <표1>을 참조하라.

종교도 변화한다. 특히 개신교의 경우 서울이 거대 메트로폴리스로 탈바꿈하면서 초대형 교회가 등장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서울의 발전과정 속에서 개신교회는 계속 성장 하였다. 홍영기(Yong-Gi Hong)에 의하면 2002년을 기준으로 일만 명 이상의 신자들의 모이는 초대형 교회가 전국적으로 15개 있는데 이중 11개가 서울 안에 위치한다.³⁾

이 연구는 서울의 성장과 관련하여 초대형 교회 건축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개신교 초대형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 했던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각 시대별로 나누어 서울과 초대형 교회의 사회적 상관관계 그리고 그 특성을 논의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를 다루는 부분은 서울의 새로운 특성을 논의하고, 건축물로서의 개신교회의 특성을 건축양식과 예배당 공간구성 그리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이해해 보고, 무리한 교회 건축의 현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다.

II. 성장동맹과 초대형 교회의 등장: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서울은 아래<표1>에서 보듯이 물리적으로 확대 되었다. 1961-1980년의 20년간 서울에서 실시된 구획 정리 지구는 모두 33개 지구 1억630만㎡ 달해 여의도 38개분의 신규택지가 조성되었다⁴⁾.

<표1> 서울의 인구 및 면적 증가(2010년 서울시 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작성)

연대	인구(명)	면적(km ²)
1960년	2,445,402	268.35
1970년	5,433,198	613.04
1980년	8,364,379	627.06

2) 김결,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요인과 설명요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권 1호, 2007, pp. 37-38.

3) Hong, Young-Gi, "Encounter with Modernity: The "McDonadlization" and "Charismatization" of Korean Me-ga church,"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Vol. XCII, No.365, 2003. p. 240.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초대형 교회는 늘어났고 주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등록교인 수를 공개하지 않는 교단이나 교회가 있어서 정확한 초대형 교회의 숫자를 파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4)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서울:한울 아카데미, 2002, p. 284.

1990년	10,612,577	605.34
2000년	10,373,234	605.50
2009년	10,464,051	605.25

이러한 서울의 도시개발은 군사정부 하에 조국근대화 사업의 일환이었고, 대통령이 임명한 군인출신 시장들에 의한 기술 관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60년대 동안 서울 개발은 사대문 안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과 같은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서울의 개발은 강남개발과 같이 대단위 계획적 방식으로 본격추진 되었다.⁵⁾ 강남개발은 강북지역의 인구를 분산하는 교외화(suburbanization)의 과정이었다. 당연히 이러한 강남개발은 서울의 광역화를 초래했으며 그와 함께 상이한 토지이용 활동(주거활동, 직장활동) 간에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했다. 따라서 지하철 건설, 도로확대, 자동차 중심 도로 건설이 차례로 이루어졌다.⁶⁾

이러한 토지활용(land use)은 도시개발에서 매우 중요하다. 로건과 몰로치(Logan and Molotch)에 의하면 도시의 변화 그리고 성장과 관련된 이익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특정 계급이나 계층이 아니라 성장동맹(growth machine)이다. 성장동맹이란 도시의 토지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친 성장 결사들과 정부단위의 조직이다. 이러한 성장동맹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부동산의 가격변화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우선 각종 시설, 관광장소, 스타디움, 철도역, 고속도로 등을 끌어들이어 입지를 만든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공 기반시설이 들어서고 나아가서 특정지역 개발을 위해 지역정부와 국가 정부 그리고 국회까지 이용한다.⁷⁾ 또한 성장동맹에 가담한 사업가들은 지리적 단위가 동네 상권처럼 작거나 혹은 국가의 한 지역과 같이 크건 간에 집단행동과 다른 사업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그 지역의 토지활용을 강화시킬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이미 성공적인 지역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계속 된다.⁸⁾ 구체적으로 이러한 성장동맹의 주요 참가자들은 정치인, 지역 언론, 가스나 전기 같은 유틸리티 회사(또는 사업자) 등이다.⁹⁾ 그리고 추가 참가자들은 영향력은 덜하

5) 앞의 책, p. 284.

6) 앞의 책, p. 284.

7) 로건과 몰로치, 『황금도시』, 김준우 옮김,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p. 9.

8) 앞의 책, p. 79.

9) John R. Logan & Harvey L. Molotch,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The Blackwell City Reader*, ed. Gary Bridge and Sophie Watson, Chichester: Wiley-Blackwell, 2010, pp. 395-396.

지만 여전히 성장에 기여하는 대학교, 박물관, 프로 스포츠팀, 극장, 교향악단 등이다.¹⁰⁾ 이러한 성장동맹은 규제가 개입하지 않는 개발이 가능한 자본주의 자유시장에서 존재가 가능하다. 성장동맹의 주역들은 토지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¹¹⁾를 위한 개발을 규제하는 어떠한 개입도 반대한다. 이들은 개발을 내세운다. 개발이란 자유시장만이 토지사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업가의 시각에서 본다면 토지사용의 규제는 사회전반과 생산의 터전으로 주목받는 특정지역 모두를 위협에 빠뜨린다.¹²⁾ 그러나 성장동맹이 만든 결과들은 재정 건전성, 고용, 일자리 소득 이동성, 사회문제 제거, 환경파괴 등과 같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모두 있다.¹³⁾

서울 안에서 초대형 교회의 등장은 이러한 성장 동맹과 무관하지 않다. 1970년대 강남은 도시화로 인해 밀집 되어 있던 인구가 토지개발을 통해 이동해 들어오는 곳이었다. 그래서 강남은 부지를 매입하고 새로운 교회 건물을 세우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소망교회가 1977년에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1978년에 강남에 세워졌다. 그리고 층현교회와 광림교회가 각각 1978년과 1982년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 건축하였다. 이러한 교회들은 도심과 강북으로부터 이주한 인구를 대상으로 한 교회들이었고 이후 초대형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신교회들도 서울 강남을 개발하는 성장동맹에 가담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강남의 개신교회들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며 서구 선교사가 세웠고 역사가 오래된 대형교회(정동제일교회, 새문안교회, 연동교회 등)와 힘든 경쟁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70년대 개발을 통해 강남으로 이동한 인구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향순과 이광순의 분석에 의하면 1970년과 1975년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서울의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는 강남구와 강동구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강남구와 강동구에는 교육 받은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에 강북의 종로구 등의 인구는 연령층이 높았다.¹⁴⁾ 이는 강북의 오래된 주거 지역에

10) *Ibid.*, p. 396.

11) 로간과 몰로치는 토지사용에 맑스(Marx)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개념을 도입하여 토지의 가치를 특수 사용가치와 특수 교환가치로 설명 하였다. 앞의 책 pp. 62-63, 70을 참조하라.

12) 로간과 몰로치, 앞의 책, p. 79

13) John R. Logan & Harvey L. Molotch,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pp. 395-396.

14) 이향순, 이광순, 「도시구조의 변동과 대형교회의 성장」, 『선교와 신학』 10집, 2002, p. 61.

는 나이든 구 중산층들의 비중이 높은 반면 강남구와 강동구의 개발지역에는 젊은 신 중산층이 주로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강남에서 초대형 교회가 등장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향순과 이광순에 의하면 대형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경제력이다. 대형교회는 부지마련과 건물 건축을 위한 초기비용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인들의 부담이 크다. 그러므로 교인들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서 초기비용을 현금할 수 있어야 대형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¹⁵⁾ 강남으로 이주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젊은 사람들은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한 이 초기 비용을 감당 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강남으로 이주해온 중산층 이상의 이주민과 초대형 교회 사이에는 일종의 친화성(affinity)이 있었다.¹⁶⁾ 그래서 초대형 교회는 주로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강남 이외에는 강동구의 명성교회가 이 시기인 1980년에 설립되고 1983년에 교회 건축을 완공하였다. 반면 강서의 목동지역은 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저렴한 임대 아파트의 비율이 높았고 또한 강북의 상계동 등의 인구 고밀도 지역도 초기에는 소형 중심의 주공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들 지역으로 들어온 이주민들의 경제력으로는 대형 교회 건축물을 위한 초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주로 인한 수요는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상가 중심의 소규모 교회들의 물려있게 되었다.¹⁷⁾

III. 건조환경의 조성파 초대형 교회:1990년대

1990년대 서울은 여전히 성장동맹이 작동하고 있었다. 성장동맹은 다양한 건설 사업을 통해 서울을 바꾸고 있었다¹⁸⁾. 그러나 이러한 건설 사업들은 토지활용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성장동맹에 의한 것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5) 앞의 논문, p. 60.

16) 앞의 논문, p. 59.

17) 앞의 논문, pp. 60, 62.

18) 도심에는 각종 고층빌딩 건설되었고, 1970년 이후로 지은 아파트들이 수명이 끝나 재건축되기 시작하였고, 강남에는 KOEX mall(1989년)이 세워지고, 타워 팰리스(1999년 착공)와 같은 주상복합 고급형 아파트가 나타나고,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가 개발되어 아파트와 공원들(하늘공원과 노을공원 등)로 탈바꿈 하였다. 그리고 공원이 많이 조성되었다. 여의도 광장이 여의도 공원(1999년)으로, 그리고 1995년 이후 영등포 OB맥주 공장 터에 영등포 공원, 천호동 파이롯트 공장 터에 천호동 공원, 성수동 삼익약기 공장 터에 성수공원이 조성되었다. 또한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은 연장되고 5, 6, 7, 8호선이 완공되었다.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와 함께 민주화가 시작이 되었고, 1995년에는 수출액이 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었고 무역흑자는 곧바로 서민경제 호황으로 이어졌다¹⁹⁾.

이러한 경제발전은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경우에 자본과 노동의 교환관계 통한 생산으로 인해 잉여가치 즉 새로운 자본이 창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은 생산에 다시 투입되어 계속 잉여가치를 만든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경제성장이 지속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규정한 법률 안에서 경쟁을 하는 각각의 자본가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 자본가들의 행위는 자본가 계급 전체의 이익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결국 미래의 자본축적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처럼 팔아야 하는 노동자들도 자본가의 통제 아래 경쟁한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노동을 여전히 착취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기 노동으로부터 소외(alienation)된다. 그렇다면 생산된 상품의 구매자이기도 한 노동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생산을 늘릴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창출된 잉여가치가 생산에 재투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자본가들 전체의 자본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과잉축적”(overaccumulation)이 발생한다.²⁰⁾ 이것이 하비(Harvey)가 지적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의 과잉축적은 시장에서 소화 시키지 못하는 상품의 과다생산, 이익률의 하락, 생산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익을 내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자본 즉 잉여자본, 그리고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잉여노동과 더욱 더 강화되는 노동력의 착취 등으로 나타난다.²¹⁾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성 있는 다른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는 자본의 2차 순환(the secondary circuit of capital)이 이루어진다.²²⁾ 그 새로운 사업이란 이전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를 유도하여 과잉 축적된 자본을 순환하게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기꺼이 지원하고 보장하여 자본가들의 집단적인 참여가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²³⁾ 주로 공장,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과 같은 고정자본을 만드는

19) 《매일경제》 2010년 9월 26일자 기사, 「백화점식 나열 이제 그만 맞춤형 대책 내놓아야」

20) David Harvey, *The Urbanization of Capital: Studies in the History and Theory of Capitalist Urbanization*,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 p. 2.

21) *Ibid.*, p. 4.

22) *Ibid.*, p. 9.

것과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주택, 공원, 쇼핑몰과 같은 소비를 유도하는 물적 토대를 만드는 사업들이 그 예들이다. 자본가가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게 하려면 생산부문에서는 과잉축적된 자본이 화폐자본으로 그 형태가 전환되거나 아니면 재고상품이나 현금화된 잉여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잉여자본을 신용 및 화폐로 창출시키는 가공자본의 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부문에서는 저축으로 축적된 잉여가 자본시장을 통해 전입된다.²⁴⁾ 이러한 과정이 바로 하비가 말하는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²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자본의 3차 순환(the tertiary circuit of capital)으로서 국가는 세금을 징수하여 이를 학교와 병원과 같은 과학기술과 노동력 재생산에 투자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한다.²⁶⁾

이러한 자본의 2차 3차 순환은 서울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경제활동이 서울로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내에서 경제활동의 중심인 서울에서도 자본의 2차 3차 순환이 이루어졌다. 조명래에 의하면 하비의 건조환경론은 도심 재개발, 주택단지 개발, 신도시개발, 대규모 하부구조 개발 사업의 구조적 원인과 그 이데올로기, 관련 계급집단간의 이해갈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훌륭한 분석 시각을 제공한다. 실제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토지가 및 주택가의 급상승, 부동산 투기, 신도시 건설 등은 한국 자본주의가 발생한 잉여(즉 1980년대 후반 3저 현상에 의해 발생한 잉여)가 토지 주택 부문으로 대거 전입되어 나타난 측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²⁷⁾

강남의 개신교회도 이러한 건조환경 밖에 존재 하지 않았다. 교인의 증가로 인해 축적된 현금을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즉 교인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투자하였다. 도시에서 자본의 2차와 3차 순환이 이루어지듯이 강남의 대형 교회는 크게 증가하는 현금을 축적해 놓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증축에 사용하면서 그리고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국가와 연관된 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과 건물을 세우면서 소비하였다. 이렇게 건조환경에 반응하면서 강남의 교회들은 초대형이 되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남의 초대형 교회들은 1900년대를 전후하여 예배당을 증축하거나 많은 부속건물과 기관을 세웠다.

23) *Ibid.*, p. 7.

24) 조명래, 앞의 책, p. 148.

25) *op. cit.*, p. 7.

26) *Ibid.*, p. 10.

27) 조명래, 같은 책, p. 153.

〈표2〉 강남 초대형교회 주요 건축물의 입당(또는 완공) 연도

교회	설립연도	강남의 예배당 입당연도	증축 또는 새성전 입당연도	부속건물 또는 기관명칭	완공연도
광림교회	1954	1982	1990	교육관, 선교관	1984
				광림 백운 수양관	1987
				웨슬리관	1989
				광림 세미나 하우스	1995
				광림 수도원	1997
				국제광림비전랜드	2007
소망교회	1977	1982	1987	소망 수양관	1993
				소망 아카데미	1996
				제2교육관	2006
				노인전문요양센터	2009
충현교회	1954	1988		충현 동산 및 자연장	1973
				충현 기도원	1981
				충현 복지관	1998
사랑의 교회	1978	1985	2012	교육관	1984
				수양관	1998
				사랑의 복지관	1997
				사랑의 전인 치유센터	2012

한편 정부는 1989년부터 일산, 분당, 평촌, 판교, 산본 등 수도권 지역 신도시 개발계획을 연속으로 발표한다. 신도시 개발은 199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이 또한 건조환경 속에서의 자본의 2차와 3차 순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규모의 인구가 유입된 이러한 수도권 신도시들 중에서 분당에서 다른 신도시 보다 더 많은 초대형 교회²⁸⁾가 나타난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강남의 이주

28) 예를 들면 일산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1997년 설립)와 벨렐교회(1993년 양친구 목동에서 이전)가 그리고 평촌에는 새중앙 교회(1995년 설립)가 초대형 교회이다. 그러나 분당에는 더 많은 초대형 교회들이 나타났다. 지구촌 교회(1993년 설립), 할렐루야 교회(1997년 강남구 대치동에서 이전), 만나교회(1993년 송파구에서 이전), 분당우리 교회(2002년 설립), 그리고 우리들 교회(2002년 설립)가 분당의 초대형 교회들이다. 분당우리 교회와 우리들 교회는 1990년대에 설립되지 않았지만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강남에서 이전 또는 강남의 신자들이 분당에 모여서 형성된 초대형 교회이다. 그리고 분당에는 일 만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인 초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강남에서 이전해 와서 대형교회로 성장한 한신교회(1998년 반포에서 이전), 갈보리 교회(2000년 삼성동에서 이전), 가나안 교회(1993년 서초동에서 이전), 그리고 샘물교회(1998년 서울영동교회에서 분리)등이 있다.

민과 대형교회와의 친화성과 유사하게 설명 할 수 있다. 다른 신도시와는 비교하여 분당은 강남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생활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집값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²⁹⁾ 즉 분당의 이주민은 강남의 이주민처럼 교회가 초대형화 되는 초기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현금을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IV. 포스트 메트로폴리스 서울과 초대형 교회의 스펙타클: 2000년대

1. 포스트모던 소비문화 도시가 된 서울

1990년대 이후 서울은 소비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강남은 소비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심승희와 한지은은 강남의 중심이자 명품매장으로 유명한 압구정동과 청담동 지역이 1990년대 초반부터 고급스럽고 배타적인 소비문화를 위한 경관을 만들어 왔다고 주장한다.³⁰⁾ 이러한 도시의 소비 공간화는 도시 발전에 중요한 과정이다.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도시는 생산만을 하여서는 발전을 할 수가 없다. 도시는 생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소비의 장소이어야만 한다. 박영균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서구의 도시 안에서 인간의 소비욕망을 자극하는 세 번의 혁명이 일어난다. 첫 번째 소비혁명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포드주의(Fordism)를 통해 대량 생산된 상품을 소화하기 위해서 소비욕망을 자극하는 전파매체와 교통수단 라디오 기차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소비는 더 이상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욕망을 위한 소비이다.³¹⁾ 두 번째 소비혁명은 1929년 발발한 세계 대공황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29) 월간지 《신동아》 2000년 6월호 기사 「신도시 라이벌 10년 잘난 분당 못난 일산?」에 의하면 1999년 4월 롯데 백화점 일산점이 하루고객 2만 명 매출액이 250억 원인 반면 분당점은 하루고객 3만4000명에 매출액이 350억이라고 보도 하였다. 또한 2002년 8월 13일 《부동산 신문》의 기사 「특급신도시 분당과 일산 어디가 좋은가」에 의하면 신도시 중 가장 성공적인 일산과 분당의 부동산 시가 총액이 분당(23조 7,743억 원)이 일산(9조 9,993억 원)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가구당 매매가도 분당(2억, 7,741만원)이 일산(1억 9,000만원)보다 높다.

30) 심승희, 한지은,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의 소비문화 경관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 제9권 1호, 2006, p. 77.

출발하였다. 자본의 과잉화로 인한 세계 대공황은 축적된 자본을 도시 경관(landscape)을 만드는 데 소비하는 방식으로 해소하였다. 도시는 보여 주는 대상이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 경관을 위한 자본투자는 도시의 스펙타클(화려한 풍경, spectacle)을 강조하기 시작했다.³²⁾ 세 번째 소비혁명은 포스트 포드주의(post-Fordism)로 대변되는 다품종 소량 생산 즉 생산시스템의 유연화이다. 이러한 생산은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신만의 상품을 소유하려는 기호가치의 발생을 가능하게 한다.³³⁾ 이상 세 번의 혁명 모두 자본의 기술적 생산 시스템에 맞추어져 진행이 되었다.³⁴⁾ 그리고 동시에 이 혁명들은 모두 소비욕망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산업자본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임노동의 통제와 훈육을 통해 생산-기계의 형성에 중심을 두었다면 20세기 중후반의 산업자본은 향락을 통한 축적에 집중했다고 박영균은 주장한다.³⁵⁾

이러한 소비문화는 도시 공간 전체를 연출하는 문화적 코드이다. 그리하여 도시의 경관은 소비를 위한 스펙타클과 이미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도시의 소비경관은 도시 사람들의 장소의 정치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³⁶⁾ 나아가서 이러한 도시는 기능과 시설 중심의 모던 도시에서 스펙타클을 만들고 이미지를 소비하는 포스트 모던 도시로 변모한다. 그리하여 소자(Soja)는 메트로폴리스 이후의 도시 즉 포스트 메트로폴리스(postmetropolis)를 제시한다. 그는 포스트 메트로폴리스의 성격을 여섯 가지로 규정³⁷⁾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미지를 재구성하는(restructuring the urban imaginary) 도시이다. 소자는 보드리야르(Baudrillard)의 시뮬라시옹(simulation)³⁸⁾ 개념을 활용하여 도시의 이미지 정치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의 도시로 불리는 미국 L.A.(Los Angeles)는 디

31) 박영균, 「욕망의 정치경제학과 현대도시의 위기」, 『마르크스주의 연구』 6권 2호, 2009, p. 165.

32) 같은 논문, p. 167.

33) 같은 논문, p. 168.

34) 같은 논문, p. 164.

35) 같은 논문, p. 164.

36)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p. 390.

37) 소자가 제안하는 포스트 메트로폴리스의 여섯가지 형태는 포스트 포드주의적 산업도시, 세계화의 영향을 받는 도시, 구조가 재형성되는 도시, 다민족 다문화로 새로운 모자이크를 만드는 도시, 새로운 통치가 실행되는 도시, 그리고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도시이다. 자세한 내용은 Edward W. Soja, *Postmetropolis: Critical Studies of Cities and Regions*, Oxford:Blackwell Publishers, 2000을 참조하라.

38) 이에 대하여는 장 보드리야르, 『시뮬라시옹』, 하태환 옮김, 서울: 민음사, 2001, pp.9-10을 참조하라.

자이너, 계획가, 선출된 공무원, 사업가, 시민들의 시뮬라시옹을 통해 상상이지만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고 사실성(또는 현실)에도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가 된다. 다시 말해서 시뮬라시옹을 통해서 도시전체가 놀이 공원으로 변화하여 실제의 L.A.는 디즈니랜드화된 과잉실체(hyperreality)의 L.A.로 대체된다.³⁹⁾ 이것이 포스트 메트로폴리스로서의 L.A.이다. L.A.는 단지 거주하고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디즈니 만화영화와 같은 특정한 주제가 시뮬라크르된 상징장소가 된다. 그러므로 포스트 메트로폴리스란 문화, 도시 공동체, 생활양식,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서 시뮬라크르된 과잉실체로 재구성된 도시이다.

이러한 소비하는 공간으로서의 포스트 모던 도시는 더 이상 성장동맹으로 발전하는 도시가 아니다. 이러한 도시는 대형 건설 사업으로 자본을 순환 시키는 건조환경을 넘어 스펙타클을 만들고 환상을 소비하는 공간이 된다. 서울의 경우 강남의 잠실에는 제2의 롯데월드가 공사 중이다. 지상 123층(555m)의 이 랜드마크는 6성급 호텔, 테마파크, 백화점, 아웃도어 쇼핑몰, 레저시설로 구성되었고 아케이드를 통해 기존의 롯데월드와 연결된다. 이 공사가 끝나면 롯데월드는 물리적 장소로서의 잠실보다 더 크고 강하게 서울시민의 사회문화적 삶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과잉실체로서의 ‘롯데의 세상’은 실체로서의 잠실을 지우고 아름다운 추억과 재미있는 놀이의 시간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로써 서울 시민에게 다가갈 것이다. 서울에서 스펙타클을 만드는 것은 강남의 롯데월드만은 아니다. 거대한 건축물로서의 초대형 교회들도 그러하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굵직한 초대형 교회의 건축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초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는 2,000억 예산(600억 원 차입 포함)의 교회건축을 발표했고⁴⁰⁾ 2012년 완공 입당하였다. 강동구의 초대형 교회인 명성 교회도 497억 예산의 새성전 건축을 2009년 8월 발표하고⁴¹⁾ 2012년 입당하였다. 최근 서울 시내 한가운데 있는 새문안 교회도 880억⁴²⁾ 예산의 교회 건축계획을 세우고 2014년 4월 30일을 착공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건축하는 교회들이 사용하는 수사를 살펴보면 그 교회가 만드는 과잉실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랑의 교회의 경우 건축에 관계하여 나온 수사는 “예배공간이 부족하다”, “사랑

39) *op. cit.*, pp. 340-341.

40) 《국민일보》 2009년 11월 23일 보도, 「사랑의 교회 새 성전 윤곽 부지매입 건축 등 2000억 들여」.

41) 《아시아 경제》 2009년 8월 13일 보도, 「사회건설, 497억 규모 교회 신축공사 계약」.

42) 이 예산 중 280억이 아직 부족하여 추가 현금약정이 필요하다고 한다(2014년 4월 10일 새문안 교회 홈페이지 참조).

의 교회라는 브랜드 때문에 분립하려는 지역의 다른 교회 교인들이 거부감을 갖는다”, “가진 자, 기득권층을 변화시켜야 한다. 강남은 땅 끝이요 사마리아다 강남을 변화 시키는 영적 공동체가 되려한다”⁴³⁾ 등이다. 이러한 수사들은 강남에서의 종교적 랜드마크 또는 초대형 종교 스펙타클이 되기 바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2. 초대형 교회 건축 형태의 변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진행된 초대형 교회의 건축양식의 특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로 건축양식이다. 이정구에 의하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분당 및 수지 지역에 위치한 몇몇 대형교회 건축물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가 모방적이고 키치(kitsch)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키치 자체는 예술의 한 장르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지만 이것이 혼성모방으로 조화롭지 못하게 삽입이 될 때 값싼 예술, 싸구려 건축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정구에 의하면 이러한 대형교회의 외형적인 양태는 최근 국내에 유행하고 있는 디즈니랜드와 유사한 유치원, 러브호텔, 웨딩홀의 외형들과 공통적인 유사 고딕⁴⁴⁾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고딕양식을 모방한 뽀족한 종탑이나 첨탑을 가진 교회나 아예 교회 건물 전체를 고딕양식으로 모방한 교회는 서울에 많다. 이러한 건축형태는 종교시장에서 교회건물이 주는 이미지를 신자(고객)들이 영화나 그림 등에서 보았던 서구 교회와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서 서양의 성스러운 이미지를 재현한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포스트 메트로폴리스 서울에는 이러한 서양의 성스러움을 모방한 또 다른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백화점이다. 우리는 그리스 신전과 같은 백화점의 내부와 외부 인테리어를 종종 발견한다. 그래서 벤야민(Benjamin)은 거대한 도시는 일종의 종교적 도취에 빠져있고, 백화점은 그러한 도취에 봉헌된 사원 같다고 말한

43) 《뉴스엔조이》 2009년 11월 25일 보도, 「예배당 건축은 불가피한 선택」.

44) 고딕양식은 12세기에서 16세기까지 서양에서 지배적이었던 교회 건축 양식이다. 이 양식은 수직적으로 하늘로 치솟는 모양이 보편적이며 이는 신에게 다가가려는 인간의 열망을 표현한다. 특히 12세기 프랑스의 사르트르 성당은 고딕건축의 정수로 알려져 있다. 마르코 부살리, 『세계 건축의 이해』, 우영선 옮김, 서울: 마로니에북스, 2009, pp. 132-133을 참조하라.

45) 이정구, 「한국 교회 건축의 실제」, 『한국문화와 예술』 5집, 2010, pp. 167-169.

다.⁴⁶⁾ 또한 그에게 도시의 교회는 세속적인 건축양식을 모방하기도 한다. 벤야민은 19세기에 지어진 노트르담 드 로레타(Notredam de Lorette)⁴⁷⁾ 성당이 교회 같지 않고 아주 화려한 카페 같다는 취지의 인용문을 그의 미완성작 “아케이드 프로젝트”에 삽입해 놓았다⁴⁸⁾. 이 성당을 보면서 벤야민은 아케이드는 성당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케이드의 건축 양식이 종교건축에 침투한 것이다.⁴⁹⁾ 벤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백화점이 종교 건축물인 교회를 모방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소비를 하는 카페와 같은 내부 인테리어를 모방하는 것 모두 결국 종교의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성스러운 허울을 쓴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체현(embodiments)이다. 나아가서 벤야민은 자본주의가 교리(dogma)와 신학이 없는 광적인 숭배(cult)와 같다고 비평한다⁵⁰⁾.

둘째로 초대형 교회 예배당의 내부구성의 변화를 살펴보자. 1990년대 이후 건축한 전국 66개 대형 및 초대형 교회를 분석한 유보영에 의하면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대형화 3,500석 이상의 예배당이 나타난다.⁵¹⁾ 예배당의 평면형태는 장방향 형태가 가장 선호되는 유형이다. 그러나 3,600석 이상의 초대형 교회 규모로 예배당이 커질 때는 부채꼴, 정방형, 타원형, 원형의 분포를 보였다.⁵²⁾ 이희준도 마찬가지로 견해를 제시한다.⁵³⁾ 이는 시각적 한계를 중심각을 키워 극복하여 회중과 강단의 거리를 단축시켜 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⁵⁴⁾ 그리고 예배공간의 회중석은 강단을 중심으로 축을 구성하여 배치되고 대부분 평면의 형태를 따른다. 장방형과 정방형 형태의 일부 대형교회 예배당은 등축(longitudinal)으로 구성되고 그외 대부분 대형교회 예배당은 강단을 향하여 집중배치 되는 사축(transversal)의 구성을 갖는다.⁵⁵⁾ 그리고 대부분 설교자의 얼굴을 거대하게 확대

46) Walter Benjamin, *The Arcade Project*, trs. Howard Eiland and Kevin McLaughlin, 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Press, 1999, p. 19.

47) 파리의 제9구역(arrondissement)에 위치한 신고전주의적 양식의 교회이다. 이 성당은 프랑스 혁명과정에서 파괴되었고 1823년에 재건을 시작하여 1836년에 완공되었다.

48) *op. cit.*, p. 408.

49) *Ibid.*

50) Walter Benjamin, *Walter Benjamin selected writing Vol.1 1913-1926*, ed. Marcus Bullock and Michael W. Jennings, London: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p. 288-289.

51) 유보영, 「대형교회 예배 공간 구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p. 54.

52) 앞의 논문, p. 79.

53) 이희준, 「최근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 예배공간의 특성 연구-대전 노은 신도시에 위치한 교회 건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권 12호, 2011, p. 114.

54) 유보영, 앞의 논문, p. 79.

하여 비추는 프로젝터와 스크린이 설치되었다. 예배당의 단면 구성 방법은 단순 발코니 형식에서 벗어나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강조한 프로세니움(proscenium)⁵⁵⁾ 무대형식이 도입되었다. 규모가 대형에서 초대형으로 커짐에 따라 예배당의 층수도 다층화되어 3개층으로 형성되고 2층과 3층은 발코니로 구성되는 등 다양한 단면 구성을 보인다. 이러한 단면 구성 방법은 제한된 공간에서 수용인원을 늘이고 가지거리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⁵⁷⁾

셋째로 교회 건물 전체의 공공성을 살펴보자. 우선 교회 건축을 할 때 공동영역을 만들어 지역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현진은 최근 교회건축에서 나타나는 공동영역의 특성 형태가 교회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에 광장과 가로를 만들어 주변 환경과 완충되고 교회 건물의 개방감을 주고 있다고 평가한다.⁵⁸⁾ 물론 교회건축은 지역 커뮤니티를 재고하기 위해서는 주위 건물과의 전체적 이미지가 조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체감과 단순감, 그리고 외부공간이 넓을수록 접근성이 좋아진다.⁵⁹⁾ 그러나 광장과 가로 정도의 공동 영역화 정도를 교회 건물의 공공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초대형 교회의 공간은 친교, 교육, 봉사와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야 공공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 프로그램, 노인대학, 지역봉사 프로그램 진행 장소 등과 같이 일회성이 아닌 것이라야 한다. 송병준과 이호준은 공연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청소년극, 인형극, 뮤지컬, 영화상영, 명사초빙강연)과 교육활동 프로그램(일본어, 중국어, 영어회화, 예절교육, 종이접기, 피아노, 무료건강특강, 꽃꽂이, 육아놀이, 컴퓨터, 수지침) 등의 문화선교를 위해 교회건축 공간의 변화를 제안한다.⁶⁰⁾ 그러나 이정구는 오늘날의 교회는 과거의 문화 종합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후 몇몇 지역 교회들이 지역사회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분업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55) 앞의 논문, p. 80.

56) 무대와 객석의 경계에 있는 개구부를 의미한다. 프로세니움 무대는 가장 보편적인 공연 무대의 형식이다. 관객은 개구부를 향해 앉아서 무대의 공연을 집중하며 관람 할 수 있다. 이 무대 형식은 무대의 뒤와 옆의 공간을 활용하여 무대장치를 이동 할 수 있어서 관객의 시선을 이끄는 화려한 효과를 만들 수 있다.

57) 유보영, 앞의 논문, p. 80.

58) 현진, 「대화화에 다른 교회건축의 공공영역 특성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p. 101.

59) 한규영, 최성연, 「시각적 분석에 의한 교회건축과 커뮤니티 형성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5권 9호, 1999, p. 99.

60) 송병준, 이호준, 「문화선교를 위한 개신교 교회건축 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권 2호, 2002, p. 321.

미지수라고 평가한다.⁶¹⁾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건축물, 예를 들어 예술극장, 전문학원, 복지센터 등은 서울 안에 이미 많이 존재한다.

이상의 건축양식, 예배당 구성 그리고 공공성 세 가지 기준을 염두에 두고 최근 새성전을 완공하고 입당한 사랑의 교회 건물을 한 예로 살펴보자. <사진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랑의 교회는 현대적인 두 개의 유리표면 건물인 드림센터(14층)와 미션센터(8층) 사이에 광장이 있고 중세의 고딕 양식의 모방으로 보이는 첨탑이 여전히 존재하는 형태로 건축되었다. 이러한 건축 양식에 대한 건축가 정시춘과 서울대 건축학과 김광현 교수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전통적인 교회의 느낌은 지워냈지만 유리로 된 건물 걸면은 차갑게 느껴지고 일몰 시간에 사방에 빛을 발산하지만 자신을 과시하는 빛으로 읽히기 때문이다.⁶²⁾

<사진1>



예배당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위치한 6,500석의 부채꼴형 본당은 강단을 향하여 구성되었다. 그리고 6개 영상 예배실까지 합하면 동시에 1만 300명이 함께 예배드리도록 시공되었다.⁶³⁾ 즉 예배당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조이다. <사진2>에서 보듯이 본당에는 두 개의 초대형 화면이 있어서 목회자를 투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당 내부에서는 어디에 앉든지 목회자의 모습을 크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와 설치물은 모두 목회자

61) 이정구에게 과거 교회는 당대의 영적, 지적, 문화적 기능이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집이었다. 교회는 시각 예술작품인 제단화와 성인조각물 그리고 그들의 유품이 안치되어있는 상설 전시관이었으며 스탠드클라스 조명은 그 전시장의 신비감을 더해 주었다. 한편 그레고리안 찬트와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감상하던 곳이었다. 이정구, 앞의 논문, pp. 169-170을 참고하라.

62) 《뉴스앤조이》 2013년 10월 25일 기사, 「사랑의 교회 새 예배당을 읽다」.

63) 2014년 4월 10일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중심의 교회를 내면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⁶⁴). 또한 사랑의 교회는 입당예배에서 사회적 섬김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건축물에서는 그 의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듯하다. 건물 중앙에 광장을 만들어 통행이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약간의 공동 영역화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건축물 안에 결혼식을 위한 언약채플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곳은 5시간씩 5회에 걸친 신자교육을 받은 후 교회에 등록을 하여 6개월 이상이 지난 신자만이 신청하여 제비뽑기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진2>



3. 개신교회의 내파

자본주의 포스트 모던 소비문화 안에서 존재하는 서울의 개신교회들은 최근 건축으로 인한 재정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였다. 거액을 차입하여 건축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축은 이전의 토지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성장동맹의 구성원으로서 모습도 아니고 건조환경 속에서 과잉축적된 자본을 순환하는 모습도 아니다. 최근에 들어와 이러한 무리한 건축을 진행한 서울의 개신교회들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내파(implosion)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은성교회는 6년간 900억의 금융권 대출을 받고 건축을 진행하던 도중 500억 원 빚과 함께 공사가 중단되었다. 분당의 충성교회는 526억에 경매시장에 나왔다⁶⁵). 강남 순복음 교회 김성광 목사는 2014년 3월 초 조선일보를 포함한 네 곳의 일간지에 2, 3일 간격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강남 순복음 교회를 400억 원에 매입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광고를 게재하였다⁶⁶). 이에

64) 앞의 기사.

65) 《국민일보》 2013년 9월 8일 기사, 「빛 더미 교회 신축 부메랑」.

66) 《뉴스미션》 2014년 3월 21일 보도와 《크리스천투데이》 2014년 3월 12일 보도를 참

여의도순복음 교회는 3월12일 “강남 순복음교회는 현재 부채가 300억 원이 있고 매달 이자만 1억 원을 지출하며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그리고 “교회 건립 이래 재적 1만 명의 성도로 늘며 성장해 왔지만, 예배당 증축과 기도원 건축 등으로 재정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포함한 반박 기사자료를 내었고⁶⁷⁾ 이후 책임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표3에서도 보듯이 지난 2008년 이래로 종교시설이 파산하여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낙찰률은 떨어지고 있다.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기도원이나 사찰 등도 포함하겠지만 대부분이 교회라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통계는 앞에서 언급했던 교회의 건축비용이나 건축 이후 관리비용과 관계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한 교회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법원경매 전문정보 업체 “부동산 태인”이 발표한 종교시설 경매 물건 수 및 낙찰률⁶⁸⁾

연도	경매 물건 수	낙찰률(%)
2008년	181	19.89
2009년	227	18.94
2010년	299	19.40
2011년	251	15.54
2012년 (11월21일까지)	272	15.07

나아가서 <표4>를 보면 개신교회의 금융권 대출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 금액 전체가 건축과 관계하여 대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같은 자료에서 평균 12억 3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대출액이 건축이외에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수협은 교회에 대출해준 금융기관 1위이며 전체 금융권 교회대출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수협은 최근까지 교회 특화대출을 하였다. 그런데 수협은행의 교회대출 연체율은 2.16%로 2012년 말 0.24%보다 아홉 배나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교회 대출 연체율은 또한 2013년 10월 초 발표된 대기업 대출 연체율 0.81% 그리고 가계대출 연체율 0.99%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⁶⁹⁾ 쉽게 말해 한국 개신교

조하라.
 67) 《기독일보》 2014년 3월 23일 기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재정난 몰린 강남교회 '역지'... 즉각 중단하라」.
 68) 《경향신문》 2014년 7월 3일 기사, 「분당 대형교회, 경매로 나와...'526억」.

는 많은 돈을 빌렸으나 갚지를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다.

<표4> 2013년 김영주 국회의원 발표 국내 은행의 교회 대출 잔액 추이⁷⁰⁾

연도 월	잔액(억 원)
2008년 12월	3조2996
2009년 12월	3조6706
2010년 12월	3조7193
2011년 12월	3조9871
2012년 12월	4조3410
2013년 6월	4조5107

<표5> 2013년 김영주 국회의원 발표 교회대출 은행 잔액 상위권 순위⁷¹⁾

은행	교회대출 잔액(억 원)
수협은행	1조 5400
우리은행	7326
신한은행	6730
농협은행	6309
하나은행	2380

일찍이 위스(Wirth)는 현대 도시에서의 인간의 삶을 간파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시인의 삶은 첫째로 인구집단의 규모(size)가 커서 개인의 자유는 증가하지만 인간관계가 파편화된다. 둘째로 인구밀도(density)가 높아서 가깝게 살고 함께 일 하지만 정서적 연대가 없고 오히려 경쟁, 대형화, 상호착취를 조성한다. 셋째로 서로 다른 이질적인 특성(heterogeneity)을 가진 개인들은 다양한 사회관계가 가능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도시사회의 구조를 안전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게 한다.⁷²⁾ 이러한 삶에 종교 공동체로서 교회는 소통과 교제 그리고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흥영기가 지적 하였듯이 목회자들이 큰 교회가 목회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하고⁷³⁾ 그리고 개신교회가 종교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차입

69) 《국민일보》 2013년 10월 14일 기사, 「교회 은행 대출 잔액 4조5107억 원 연체율도 최고 9배 '사상최고」.

70) 앞의 기사에 나온 자료를 편집.

71) 앞의 기사에 나온 자료를 편집.

72) Lois, Wirth, "Urbanism as a Way of Lif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44 No.1, 1938, p. 12,15, 16-17.

을 통해서라도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교회의 본래적 기능은 작동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목회자와 교회 신자들은 결국 건축비용의 대출과 변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남대 경영학부 박정운 교수는 교회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건축은 금융기관의 노예화, 거액의 기부자들의 간섭, 금전적 압박, 끝없는 차입의 소용돌이, 좋은 사역기회에 부응할 융통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⁷⁴⁾

V. 나오는 말

이 연구는 서울이 메트로폴리스로 발전하는 과정 안에서 그리고 이미지와 스펙타클의 도시 포스트 메트로폴리스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의 초대형 교회가 어떻게 등장하고 성장하는지를 세 시기(1970년대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로 나누어 논의한다. 1970년대 강남개발의 시기에 성장동맹에 가담한 개신교회들은 강남으로 이전을 하고 그곳으로 유입된 중산층 이상의 이주민을 흡수하여 초대형 교회의 기반을 만든다. 경제발전으로 과잉축적된 자본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건조환경 안에서 1990년대 강남의 개신교회들은 중산층 이상의 신자 증가로 늘어난 헌금을 예배당 증축과 건축 그리고 각종 기관과 부속 건물을 설립과 건축 등으로 소비하며 초대형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로 서울은 스펙타클의 도시이며 이미지를 소비하는 공간 포스트 메트로폴리스가 된다. 초대형 교회의 건축 형태의 변화가 이 시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예배인원의 증가를 위한 건축일 뿐이고 건축양식의 변화라고 보기 어려우며 건축물의 공공성의 측면에서도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초대형 교회는 결국 도시의 종교적 스펙타클을 만드는 거대한 건축물로 존재한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건축이 과도한 차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결국 중단 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개신교회의 초대형에 대한 욕망이 초래한 내파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도시화, 교외화, 성장동맹, 건조환경, 경관, 스펙타클, 소비문화, 포스트

73) Yong-Gi Hong, 앞의 논문, pp. 242-243.

74) 박정운, 「성전건축을 위한 성경적 자본조달의 원리와 교회의 차입건축」, 『로고스경영연구』 8권 2호, 2010, p. 127.

메트로폴리스

원고접수일: 2014년 5월 16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4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17일

참고도서

- Benjamin, Walter, *The Arcade Project*, trs. Howard Eiland and Kevin
McLaughlin, 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Press,
1999.
- Benjamin, Walter, *Walter Benjamin selected writing Vol.1 1913-1926*, ed.
Marcus Bullock and Michael W. Jennings, London: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 Harvey, David, "Social Justice, Postmodernity and the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16 Issue4, 1992.
- Harvey, David, *The Urbanization of Capital:Studies in the History and
Theory of Capitalist Urbanization*,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
- Hong, Young-Gi, "Encounter with Modernity: The "McDonaldization" and
"Charismatization" of Korean Me-ga church,"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Vol. XCII, No.365, 2003.
- Logan, John R. & Molotch Harvey L.,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The Blackwell City Reader*, ed. Gary Bridge
and Sophie Watson, Chichester: Wiley-Blackwell, 2010.
- Soja, Edward W., *Postmetropolis: Critical Studies of Cities and Region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2000.
- Weber, M.,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6.
- Wirth, Lois, "Urbanism as a Way of Lif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44 No.1, 1938.
- 김걸,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요인과 설명요인」, 『한국도시지리학회
지』 10권 1호, 2007.
- 로건과 몰로치, 『황금도시』, 김준우 옮김, 광주: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 마르코 부살리, 『세계 건축의 이해』, 우영선 옮김, 서울:마로니에북스, 2009.
- 박영균, 「육망의 정치경제학과 현대도시의 위기」, 『마르크스주의 연구』 6권 2
호, 2009.
- 박중윤, 「성전건축을 위한 성경적 자본조달의 원리와 교회의 차입건축」, 『로고

- 스경영연구』 8권 2호, 2010.
- 송병준, 이호준, 「문화선교를 위한 개신교 교회건축 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22권 2호, 2002.
- 심승희, 한지은,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의 소비문화 경관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 제9권 1호, 2006.
- 유보영, 「대형교회 예배 공간 구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 유승호, 「후기근대와 공간적 전환:‘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공간」, 『사회와 이론』 23집, 2013.
- 이은석, 조용일, 「“가변적 Complex Space” 개념을 활용한 도시형 교회 건축」, 『디자인 연구』 8권 1호, 2005.
- 이정구, 「한국 교회 건축의 실제」, 『한국문학과 예술』 5집, 2010.
- 이향순, 이광순, 「도시구조의 변동과 대형교회의 성장」, 『선교와 신학』 10집, 2002.
- 이희준, 「최근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 예배공간의 특성 연구-대전 노은 신도시에 의지한 교회 건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권 12호, 2011.
- 장 보드리야르, 『시뮬라시옹』, 하태환 옮김, 서울: 민음사, 2001.
-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2.
- 한지은, 「서울 공간을 소비하다」, 『서울 스토리: 공간과 시간을 엮다』, 양미경 외, 서울: 청어람미디어, 2013.
- 한규영, 최성연, 「시각적 분석에 의한 교회건축과 커뮤니티 형성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5권 9호, 1999.
- 현진, 「대형화에 따른 교회건축의 공공영역 특성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Abstract>

The Growth of City and The Construction of Mega-Church Buildings

: The Case of Seoul, Korea

Hyung Chull Jang(Induk Univ.)

This research aims to discuss the construction of mega-churches in relation to the process of becoming Seoul as a metropolis which is now transforming into a postmetropolis. For this purpose, the discussion is proceeded by considering three different phases; from the 1970's to the 1980's, the 1990's, and the 2000's. From the 1970's to the 1980's, Protestant churches participated in the growth machine. During the period of *Gangnam* development for suburbanization, some churches were able to lay the foundation to become mega size by means of constructing church buildings or moving in *Gangnam* area. They were successful to attract the population from the central area of Seoul. Then, in the 1990's when Seoul was surrounded in the built environment and has many construction sites in order to circulate the overaccumulated capital, the churches in *Gangnam* where was the residential area of upper middle class at least also built new church buildings(or built out church buildings) and began to have many annex such as Sunday school, world mission center, social service center, and prayer hall located in countryside. Through this construction, the churches became mega-churches. Since the 2000's Seoul has transformed into postmetropolis formulated by new landscape represented by skyscrapers and theme parks like Lotte World. It commenced with consuming the images and spectacles. In this period, the mega-churches still demand to have a bigger place for Sunday service without enough

concern to the publicity of building structure and the style of religious architecture in harmony with local society and culture. Thus, the mega-church buildings can be regarded as the embodiments of their capitalistic demand to become greater and to be victorious in the competition of religious market. Moreover, currently there is an increase in the financial endangerment because of loan and bankruptcy for church building construction. This can be seen as an implosion of Korean Protestant church.

Key words: urbanization, suburbanization, growth machine, built environment, landscape, spectacle, consuming culture, postmetropolis